

대학평가의 다양화 논의

김 안 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1. 대학의 가치와 그 평가

전 통적으로 대학은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서 지성의 전당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한 사회의 최고 지식인 집단이 대학이었고, 이 지식인 집단은 사회에 대하여 그에 걸맞은 모종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대학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이나 역할은 '지식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때의 지식 또는 지식인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실제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되거나 파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대학을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도 이 超實際的 특성, 곧 중세시대까지 서양인들이 카팍스 유니베르시(capax universi)라고 불렀던 지식인의 全人的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 중세의 개념 속에는 인간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수행되는 실제적 행위와 그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계와 대상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지식과 지식인의 특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대학'이라 불렀던 이유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추구되는 실제적 유용성을 넘어서는, 그보다 상위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것은 오직 대학이라는 이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점에서만 보면 반드시 대학만이 인간의 실제적 가치 추구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교육의 목적에는 이와 유사한 생각이 들어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재화의 추구하고 실제적 유용성의 생산 그리고 그 소비에만 몰두해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전인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별도의 장소, 유용성의 사회로부터 격리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아이디어였다.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가리켜 스킨레(school), 곧 ‘餘暇’라고 불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 의미에서 학교는 사회에서 추구되는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가치, 곧 세속적인 욕망의 추구를 가치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세대들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전승하려는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특정한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성이나 실제적 유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론적 지식과 학문과 예술, 곧 ‘敎科의 세계’였다. 교과목의 가치는 그것을 배워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데에 있지 않았다. 지식의 가치를 써먹는 것으로만 본다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어려운 교과 내용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류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동양에서 老子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되었던 ‘쓸모없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비슷한

것이였다.

대학과 학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無用의 有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학의 평가’라는 개념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대학평가의 개념이 주로 ‘대학의 생산성’이나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물론 현대 사회는 고대 그리스사회도 아니요, 스킨레철학이 지배하던 중세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대학의 개념도 변모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아니 이미 충분히 변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을 통해서 국제경쟁력도 길러져야 하고 생산성도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또 다른 측면, 인간의 인간적·도덕적 완성이나 참다운 지성과 아름다움의 추구 같은 것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의 관심사인 ‘대학평가’라는 것은 이러한 고려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대학평가의 다양화라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대학평가가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80년대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는 '90년대 이후 매우 근래의 일이다. 1992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학과 중심의 ‘대학평가 인정제’라는 비교적 새로운 의미의 대학평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 그 본격적 출

*강경석, “대학평가인정제의 의의와 발전과제”, 『교육진흥』, 1994 겨울호, p.50.

발점이었다. 이 평가작업의 의미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학과별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평가제도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외형적·양적 측면에서의 실상은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교적 공개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을 사회에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대학간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그 사회적 책임 또한 공적으로 평가받도록 한다는 데 있었다. 대교협이 이러한 평가작업은 '94년부터 학과 단위뿐만 아니라 대학 단위로까지 확대하여 '종합평가'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대학평가 작업이 대교협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우리 대학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 각계에서 나름대로 해오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우리의 대학들이 그 목적이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는 말이다. 다만, 그 때의 평가라는 것이 인상적인 수준에서의 평가일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평가가 아니었을 뿐이다. 또 그동안 국가의 제도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개별 대학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근래에 와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다른 어느 학교 수준보다도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나름대로 시도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언론기관과 비록 제한된 목적 아래에서이기는 하지만, 각종 입시산

업 관련 단체나 출판사 등에서도 나름대로 대학이나 학과 분야에 대하여 '자리매김'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언론기관은 이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독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평가결과를 발표해왔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평가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이나 분야단체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이 점에서 바야흐로 '평가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대학평가의 다양화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모든 평가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상이다. 예컨대 우리의 실정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이해집단이 모종의 부분적 또는 편파적 기준에 의해서 개별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별 '우수순위'를 매겨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특히 우리의 언론기관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절대적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학을 평가하는 일에는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내다보는 고도의 지성적 안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언론이 반드시 그러한 지성적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보다는, 대학이 언론의 한 가지 속성, 곧 센세이셔널리즘의 희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학을 지식인 집단이라고 규정한다면, 지식인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가치는 반드시 지식인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인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할 때에는 입을 열지만, 말이 소용없음을 알 때에는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침묵은, 때로, 지식인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며, 새로이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이기도 하다. 센세이셔널리즘은 인간의 천박한 욕망을 뒤쫓음으로써 지식인의 이러한 침묵의 미덕을 대중의 무지로부터 구분하지 못한다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3. 장기적·지속적 대학평가의 중요성

대학평가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기관)이 변화에서 가장 느린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대학 집단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를 거꾸로 말하여, 대학이 사회의 모든 시대적 변화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다. 지성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차적 또는 메타적인 방식이다. 즉각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다음의' 사고를 해보도록 해주는 것이 지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앞장서 나가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대학이 제 구실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대학이 세속적 삶의 방식상의 변화에 느리다는 것은 대

학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 옳은 것이라면, 대학 평가제를 통하여 다양한 대학들간의 경쟁과 발전을 유도한다는 말의 의미도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이 때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지성의 경쟁'이라는 것에 걸맞은 품위와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발전'이라는 것도 경제제일주의나 생산과 노동이라는 기준에서만 보는 발전을 뜻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대학은 생산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제조하는 또 다른 생산현장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대학들이 경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 발전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문화'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마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쟁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학평가의 다양화라는 현실적 과제가 자칫 우리 시대의 특이한 요구나 현실적 요청에 끌려가는 단기적 기준에 의해서 대학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학평가는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일시적·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하여 누적되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한 세대가 그 삶을 다 산 후에 '나는 대학시절에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평가여야 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의 대학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적어

도 현재와 같은 입시경쟁과 간판 위주의 대학교육이 해소되는 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대학평가라는 것은 점수경쟁과 간판경쟁이라는 대학에 대한 세인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대교협이 지난 십여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언젠가는 우리도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다양한 대학평가체제를 갖추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선부르게 대학평가를 개방해버림으로써 이제 겨우 반세기의 대학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리잡아가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토대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최상의 대학평가라는 것은 대학 그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성은 지성 그 자체 속에

자기비판과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평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의 대학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맡겨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대교협은 그동안 이 방향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대학평가와 관련된 여타의 단체나 언론에서는 대교협의 평가를 통해서도 제대로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들을 보충한다는 의미의 대학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안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본지의 편집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플라톤의 교육론』 등이 있고,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